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에 관한 소고: 전통의 실체와 변화

설 병 수

(경북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가 역사적 귀적과 노동 이주의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관성’과 ‘실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부다처제가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만연했다는 일반적 인식은 ‘신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와 성적 관행은 개별 집단의 존재 조건과 행위 주체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 실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대규모 노동 이주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 구조의 균열을 초래했다. 넷째,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남아공의 경기 침체는 일부다처제의 존속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도 남아공 사람 중 상당수는 일부다처제가 존속되길 원한다. 여섯째, 남성과 여성이 일부다처혼을 통해 획득하는 상징성은 각기 다르다.

주제어 : 남아프리카, 일부다처제, 전통, 실체, 변화

1. 시작 글

본 연구자는 2010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표기) 콰줄루나탈주(KwaZulu-Natal Province)의 키츠드리프트(Keate’s Drift)에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목적은 노동 이주가 가족과 공동

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키츠드리프트는 건조하고 돌이 많은 산간 지역, 달리 말해 ‘농사짓기 힘든 곳’이다. 그래서 이 타운 남성 중 대다수는 노동 이주를 단행했다. 그중 상당수의 기혼 남성은 타지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 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자식을 둔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일부 기혼 여성은 남편의 부재 기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 남편의 불륜으로 고향의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고, 부인의 불륜은 부부간 불화의 주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런 불륜이 남아공의 전통적인 혼인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복혼제(polygamy)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많은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를 뜻하는 *πολυγαμία(polygamía)*에서 유래했다. 복혼제는 일부다처제(polygyny)와 일처다부제(polyandry)로 나뉜다. 전자는 한 남자가 둘 이상의 여자와 혼인하는 관행을 말하며, 후자는 그 반대로 한 여자가 둘 이상의 남자와 혼인하는 관행을 말한다. 일처다부제를 행하는 사회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일부다처제를 복혼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조지 머독(George Murdock)이 1967년에 발간한 『민족지 도해』를 정리한 1998년 자료에 따르면, 1,231개 사회 중 일부다처제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사회는 588개, 일부다처제가 가끔 행해지는 사회는 453개, 일부일처제(monogamy)가 행해지는 사회는 186개, 일처다부제가 행해지는 사회는 4개에 불과했다.¹⁾ 최근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²⁾ 세계에서 일부다처제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다.³⁾ 일부다처제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다. 남녀 성비 불균형, 생계 농업, 부(富)의 편중, 가치 체계, 종교적 믿음 등은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1) J. Patrick Gray, “Ethnographic Atlas Codebook,” *World Cultures* 10(1), 1998, p.90.

2) Tsoaledi Daniel Thobejane and Takayindisa Flora, “An Exploration of Polygamous Marriages: A Worldview,”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27), 2014, p.1058.

3) 아프리카 54개국 중 26개국에서는 복혼이 합법적이며, 10개국에서는 관습법하에서 행해지고 있다. 12개국에서는 복혼이 불법이지만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복혼을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Wikipedia, “Legality of Polygamy,” 2019.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의 대다수 남성은 일부다처제하에서 복합 가구(complex household)를 형성하길 열망했다.⁴⁾ 남아프리카의 남성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을 달성한 남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은 예는 없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동 이주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동 이주는 가족과 공동체의 경제적 삶에 적잖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일부다처제라는 혼인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혼 남성이 이주지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자식을 두는 경우가 빈번했다. 고향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성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은 성적 욕구 해결과 생존 차원에서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의 간통에 대해 비교적 엄격했던 줄루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했다. 앤더슨의 견해에 따르면 1970~1980년대 무렵 유럽인은 기독교, 근대화 및 서구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남아공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소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⁵⁾ 1970년대 후반부터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근대화와 더불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다처제를 쇠퇴의 길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남아공의 많은 사람에게 이 제도는 여전히 상징적·실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 분야에서 일부다처제는 오랫동안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런 현상은 친족 연구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무렵부터 제3세계에서 근대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친족 연구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⁶⁾ 이러한 경향은 일부다처제를 비롯한 혼인 관련 연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성을 담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4) John Iliffe, *Africans: The History of a Continent*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1995], p.97.

5) C. M. Anderson, "Polygyny in South Africa," *Anthropology and Ethnology Open Access Journal* 1(1), 2018, p.1.

6) Michael G. Peletz, "Kinship Studies in Late Twentieth-Century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1995, p.345.

다처제는 아프리카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훌륭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부다처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다. 즉, 일부다처제 속에는 이 제도를 실천하는 집단의 문화적 상상뿐만 아니라 역사·사회·경제적 존재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아프리카의 여성과 관련된 이슈, 예컨대 인권, 양성평등, 경제적 역할, 자녀 재생산, 보건,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일부다처제 현상에 주목해 왔다.⁷⁾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연구 경향이다.⁸⁾ 일부다처제를 설명하는 방식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며, 단일 학문 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갈래의 모델과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진화론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인구학적 관점, 생태·환경적 관점, 젠더 관점.⁹⁾

7)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다시피 하다. 유재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통적 가족 제도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일부다처제를 다루었으나, 개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재명, 「흑아프리카 전통 가족 제도의 특징」, 『비교문화연구』 45집, 2016, 276-281쪽.

8) Penelope E. Andrews, “Who’s Afraid of Polygamy? Exploring the Boundaries of Family, Equality and Custom in South Africa,” *Journal of Law & Family Studies* 11(2), 2009, pp.303-331; Amy Ickowitz and Lisa Mohanty, “Why Would She? Polygyny and Women’s Welfare in Ghana,” *Feminist Economics* 21(2), 2015, pp.77-104; Zama Mkhize and Shanta Balgobind Singh, “Experiences of Women in Polygynous Unions in Hammarsdale, South Africa,” *Journal of Psychology* 6(2), 2015, pp.158-168; Zamambo Valentine Mkhize, “Polygyny & Gender: The Gendered Narratives of Adults Who Were Raised in Polygynous Famil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waZulu-Natal, 2015; Lea Mwambene, “What Is the Future of Polygyny (Polygamy) in Africa?,” *PER/PELJ* 20, 2017, pp.1-33; Dureti Abate Fulas, “The Legal Framework Regulating Polygamy in Ethiopia: An Assessment in Light of Liberal Feminist Legal Theor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aster Thesis, Lund University, 2018.

9) Remi Clignet and Joyce A. Sween, “For a Revisionist Theory of Human Polygyny,” *Signs* 6(3), 1981, pp.446-452; Douglas R. White and Michael L. Burton, “Causes of Polygyny: Ecology, Economy, Kinship, and Warfare,” *American Anthropologist* 90(4), 1988, pp.871-875; Melvin Ember *et al.*, “Comparing Explanations of Polygyny,” *Cross-Cultural Research* 41(4), 2007, pp.430-431; Pantiwa Naksomboon and Nathalie Mondain, “The Motivations for Polygyny in Nigeria,” Major Research Paper, University of Ottawa, 2013, pp.23-36.

본 연구의 목적은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 존재 양상을 역사적 귀적과 노동 이주의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 자료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키츠드리프트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남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어떤 양상으로 존재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 이주가 일부다처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일부다처제가 어떤 변화와 지속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문화적 관성’과 ‘실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일부다처제가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II. 전통 사회 맥락 속의 일부다처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일부다처제는 부계 농경 사회에서 주로 실천되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여성이 토지, 상속, 친정의 지원, 권력관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남아프리카의 남성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려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첫째, 다수의 부인을 두는 것은 노동력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일이거나 남성의 경제적 성공을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둘째,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가사를 꾸리는 일이 더욱더 쉬웠다. 남성 가장은 딸의 결혼을 통해 신부대(bridewealth)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부인과 많은 자식을 가진 남성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¹⁰⁾

하지만 19세기 동안 남아프리카의 남성 중 대다수는 일부다처제를 실현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남성은 나이를 먹어도 미혼 상태로 있었다. 1803년과 1806년 사이의 코사(Xhosa) 공동체를 연구한 알베르티의 진술에 따르

10) Jeff Guy, "Analysing Pre-Capitalist Societies in Southern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14(1), 1987, pp.20-22; Mark Hunter, "Masculinities, Multiple-Sexual-Partners, and AIDS: The Making and Unmaking of Isoka in KwaZulu-Natal," *Transformation* 54, 2004, p.126.

면, 가난한 남성은 한 명의 여성에 만족해야 했고, 다른 남성은 두 명의 여성을 두었으며, 세 명 이상의 여성을 둔 남성은 아주 드물었다.¹¹⁾ 1850년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은 츠와나(Tswana)족의 일파인 카(Bakaa)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278명의 기혼 남성 중 일부다처혼을 한 사람의 비율은 43.5%(121명)로 절반이 되지 않음을 발견했다.¹²⁾ 샤페라는 카틀라(Kgatla) 추장 사회에 관한 연구를 통해, 1880년 무렵 구성된 연령 집단들에 속하는 74명의 남성 중 일부다처혼을 한 사람의 비율은 37.8%(2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장 가문의 사람, 저명인사 또는 부자만이 네 명 이상의 부인을 둘 수 있었다. 카틀라족의 카만야네(Kgamanyane) 추장은 약 3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¹³⁾ 엘렌버그도 19세기 후반의 소토(Sotho) 왕국에 관한 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부인을 둔 남성의 비율이 절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저서를 번역한 맥그리거(J. C. Macgregor)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맥그리거의 진술에 따르면 소토족은 이론상 모두 일부다처주의자이지만, 두 명 이상의 부인을 두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약 12%에 불과했다.¹⁴⁾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남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는 일부다처혼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젠더가 숫자상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구할 수 없는 남성도 생겨났다.

대개의 아프리카 공동체에서 여성은 사춘기 직후에 결혼했지만, 남성은 이보다 더 많은 나이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었다.¹⁵⁾ 이런 현상은

11) Ludwig Alberti (trans. W. Fehr), *Account of the Tribal Life and Customs of the Xhosa in 1807*, Balkema: Cape Town, 1968, p.68.

12) J. J. Freeman, *A Tour in South Africa with Notices of Natal, Mauritius, Madagascar, Ceylon, Egypt, and Palestine*, London: John Snow, 1851, p.280.

13) Isaac Schapera, *Married Life in an African Tribe*,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40, pp.98-99.

14) D. Fred Ellenberger (trans. by J. C. Macgregor), *History of the Basuto: Ancient and Modern*, London: Caxton Publishing Company, 1912, pp.279-280.

15) Monica Hunter, *Reaction to Conquest: Effects of Contact with Europeans on the Pondo of South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p.186; Monica Wilson et al., *Keiskammahoek Rural Survey* (Vol. III): *Social Structure*, Pietermaritzburg: Shuter and Shooter, 1952, pp.88-91.

1860~1870년대의 페디(Pedi)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페디 사회에서는 가족의 소 떼가 나이 든 형제를 결혼시키는 데 이용되는 동안, 젊은 형제나 아들의 결혼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때론 영구히 지연되었다.¹⁶⁾ 그래서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 사회들에서 일부다처제가 남성의 성욕을 위해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견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이와 반대로, 이들 공동체가 직면했던 중대 과제는 미혼 남성 및 한 명의 부인만 둔 남성의 성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일이었다.¹⁷⁾ 대개의 아프리카 사회에는 성적 배출구가 필요한 젊은 미혼 남성이 상당수 있었고, 장기간 미혼으로 있는 남성도 일부 있었다. 이것은 신부대 획득의 필요성, 일부다처제 및 남성의 상대적 만혼을 의미한다. 또한 기혼 남성이 갖 출산한 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금기는 부인이 유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동안 적용되었다.¹⁸⁾

대다수 아프리카 사회는 젊은이의 성욕을 인식하고, 제한된 성교와 같은 장치를 통해 성욕이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차원에 이르지 않도록 최소화했다. 젊은 남성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권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성인식이 실천되는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치른 젊은 남성과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소녀 간의 성관계가

16) Peter Delius, *Land Belongs to Us: The Pedi Polity, the Boers, and the British in the Nineteenth-Century Transvaal*, London, Ibadan and Nairobi: Heinemann, 1984[1983], pp.76-77.

17) John C. Caldwell *et al.*, "The Family and Sexual Networking in Sub-Saharan Africa: Historical Regional Differences and Present-Day Implications," *Population Studies* 46(3), 1992, pp.385-410.

18) J. C. Caldwell and Pat Caldwell, "The Role of Marital Sexual Abstinence in Determining Fertility: A Study of the Yoruba of Nigeria," *Population Studies* 31(2), 1977, pp.193-217; Helen Ware, "Polygyny: Women's Views in a Transitional Society, Nigeria 1975,"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1), 1979, pp.191-192; Lawrence A. Adeokun, "Marital Sexual Relationships and Birth Spacing among Two Yoruba Sub-Groups," *Africa* 52(4), 1982, p.1; Kofi Awusabo-Asare and John K. Anarfi, "Postpartum Sexual Abstinence in the Era of AIDS in Ghana: Prospects for Change," *Health Transition Review* 7, 1997, p.257;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The Myths of Polygamy: A History of Extra-Marital and Multi-Partnership Sex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50, 2004, p.87.

금지되어 있었다. 예컨대 페디 사회에서는 어떤 남성이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벌금을 내야 했다. 또한 성인식을 치른 젊은 남성은 월경 중인 여성이 불결과 위협의 근원이라는 경고도 들었다.¹⁹⁾ 카틀라족의 경우에는 젊은 미혼 남성이 자기 종족(lineage)에 속하는 남자 친족(친삼촌 등)의 젊은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그녀 남편의 합법적인 자식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성적 관행은 간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남편이 늙었거나 성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했다.²⁰⁾

식민지 시대 이전 대다수 공동체에서는 중매결혼(arranged marriage)이 규범이었다. 모니카 헌터의 연구가 보여 주듯이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모는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의지에 반(反)해서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²¹⁾ 혼인의 중요성은 두 개인 간의 성관계를 합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권과 아이들에 대한 권리 및 협력적인 사회 단위를 확립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혼인은 불륜에 반하는 성적 권리와 금지 사항을 제공하지만,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제한이 무시되기 일쑤였다.²²⁾ 예컨대 엘렌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이웃 부인과 부도덕한 정교(情交) 관계를 맺는 것을 거의 주저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부인도 애인을 두고 있다. 부도덕한 행위는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법률은 이런 행위를 거의 억제하지 못한다. 여론은 부도덕한 행위를 묵과하며,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 이성과 정교 관계를 맺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어떤 남성이 이웃 부인과 정교 관계를 맺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붙잡히면, 보상 차원에서 소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쪽에게도 사회적 낙인은 찍히지 않는다.²³⁾

피니히의 견해에 따르면 페디 사회에서는 혼외 성교가 가능하고, 심지어

19)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Sexual Socialisation in South Africa: A Historical Perspective," *African Studies* 61(1), 2002, p.33.

20) Isaac Schapera, "Premarital Pregnancy and Native Opinion: A Note on Social Change," *Africa* 6(1), 1933, p.64.

21) Monica Hunter, *op. cit.*, p.188.

22)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p.88-89.

23) D. Fred Ellenberger (trans. by J. C. Macgregor), *op. cit.*, p.279.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문화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다만, 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관계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몸가짐을 유지해야 했다.²⁴⁾ 소가는 대개의 부족 사회에서 간통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관용의 문제이지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²⁵⁾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은 일부다처제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기보다 때론 장려했음을 보여 준다. 수많은 부인을 둔 통치자들은 어린 부인과 가신 간의 성관계를 묵인했다. 이것은 그 가신이 그러한 밀통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부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세기 후반 트란스발(Transvaal) 북부에서 활동한 선교사 바움바흐(Baumbach)의 보고에 따르면, 50명의 부인을 둔 추장은 그들 사이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²⁶⁾ 19세기 소토 왕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태도와 관행이 존재했다. 레소토(Lesotho)에서는 가난한 젊은 미혼 남성이 후견인(patron)의 어린 부인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허용되었다. 이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는 후견인에게 속하게 되었다.²⁷⁾ 엘렌버거는 소토족 추장이 자신의 어린 부인을 손님에게 어떻게 빌려주며, 그녀가 그러한 행위에 어떻게 익숙해지게 되는지를 기술했다.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편의 합법적인 자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아이들은 추장의 이름을 가지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딸린 집의 자식으로 여겨진다.²⁸⁾

이런 사실들은 부인의 정절을 지키려는 욕망보다 다산과 부권 확립에 관한 관심이 그 지역의 추장들을 심하게 압박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것이 간통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간통을 저지르다 들킨 여성은 ‘오쟁이 진 남편’(cuckold)에게서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혼외정사를 통해 임신하게 된 여성은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강제로

24) Hermann Otto Mönnig, *The Pedi*, Pretoria: J. L. Van Schaik, 1967, pp.196-197.

25) John Henderson Soga, *The Ama-Xosa: Life and Customs*, Lovedale: Lovedale Press, 1932[1931], p.139.

26) *Berliner Missions Berichte*, 1877, p.451,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91에서 재인용.

27) Andrew D. Spiegel, “Polygyny as Myth: Towards Understanding Extra-Marital Relations in Lesotho,”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History Workshop Conference, Johannesburg, February 6-10, 1990, pp.9-10.

28) D. Fred Ellenberger (trans. by J. C. Macgregor), *op. cit.*, p.279.

대게 하려고 거칠게 다루어질 수도 있었다.²⁹⁾ 하지만 대다수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았다. 분쟁은 네댓 마리의 소로 벌금을 냄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들 소는 고통을 당한 당사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녔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남성의 간통은 삶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혼외정사도 신중하게 이루어지면 묵인되었다.³⁰⁾ 그럼에도 많은 사회에서는 간통과 관련된 이중 잣대가 존재해 온 게 사실이다. 1807년 알베르티는 코사족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간통은 [...] 단지 여성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며, 남성은 이런 점에 구속받지 않는다. [...] 남성은 모든 여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성은 오직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³¹⁾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 사회의 성관계 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숙한 여성의 범주였다. 이들은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독신 상태에 있는 여성이었다. 이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여성층을 형성했다. 이들은 독신 남성과 미혼 남성이 고통을 받은 남편의 분노나 그에 의한 소송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서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성이었다.³²⁾ 모니카 헌터는 음폰도(Mpondo)족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범주의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³³⁾

이디카지(*idikazi*, 복수형은 *amadikazi*)는 결혼한 적이 있거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이를 둔 상태에서, 자신의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사는 여성을 가리킨다. [...]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과부, 남편 곁을 영원히 떠난 여성 및 결혼하지 않았으나 집에 아이가 있는 소녀는 미혼의 딸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녀와 성교할 수 있는 권리는 음노보(*umnyobo*)를 지불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하게 되면 벌금으로 소 다섯 마리를 주어야 한다. [...] 실제로 모든 기혼 남성은 앞서 말한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여성 중에서 특별한 친구를 두고

29) Ludwig Alberti (trans. W. Fehr), *op. cit.*, pp.69-70.

30)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91.

31) Ludwig Alberti (trans. W. Fehr), *op. cit.*, pp.69-70.

32)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p.91-92.

33) Monica Hunter, *op. cit.*, pp.205-206.

있다. 일부다처제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 금지하지 못하며, 여러 명의 부인을 둔 남성도 이디카지를 종종 두기도 한다.

이처럼 식민지 시대 이전 남아프리카의 여러 사회는 간통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그러나 줄루 사회의 상황은 판이했다. 글루크만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는 줄루족이 도덕적인 민족이었음을 강조한다. 줄루 사회에서 이혼, 간통, 사생(私生)은 드물었다. 순결은 높이 평가되고, 연배 집단에 의해 강제되는 도덕률(ethical code)의 일부였다. 미혼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두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간통도 엄하게 처벌되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하거나, 가시가 많은 나뭇가지로 매질을 당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에 선인장을 집어넣는 처벌이 가해지기도 했다.³⁴⁾ 카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줄루 사회에서 기혼 여성은 정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일처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부인의 간통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저지른 부인 중 일부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³⁵⁾ 하지만 대개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줄루 사회에서도 규범과 실제 간에는 적잖은 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민 지배, 노동 이주, 자본주의, 기독교의 확산, 근대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권력은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줄루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강력한 부계 체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광범하게 진행된 노동 이주가 일부다처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4) Margaret Read, "The Moral Code among the Ngoni and Their Former Military State," *Africa* 11(1), 1938, pp.16-17; Max Gluckman, "Kinship and Marriage among the Lozi of Northern Rhodesia and the Zulu of Natal," *African Systems of Kinship and Marriage*, ed. by A. R. Radcliffe-Brown and Daryle Ford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1950], p.181; Michael R. Mahoney and Julie Parle, "An Ambiguous Sexual Revolution? Sexual Change and Intra-Generational Conflict in Colonial Natal,"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50(1), 2004, p.134.

35) Benedict Carton, *Blood from Your Children: The Colonial Origins of Generational Conflict in South Africa*, Pietermaritzburg: University of Natal Press, 2000, p.69.

III. 노동 이주와 일부다처제

이주 노동 체계의 확산을 다룬 학술적 연구들과 대중 문학은 이 체계가 가족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성적 방탕을 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혼외 관계는 상당수 남성의 장기 부재에 주로 기인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대규모 이주는 혼외정사를 촉진했던 몇몇 근본적 요인을 적어도 초기엔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주자가 획득한 자원은 개인이 자연재해에 덜 취약하고, 신부대 확보 과정에서 나이 많은 친족, 특히 아버지에게 덜 의존하도록 했다.³⁶⁾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적어도 초기에는 젊은 남성의 결혼이 비교적 쉽고, 일부 공동체에 서는 나이 든 미혼 남성의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부다처제가 식민지 시대 초기엔 증가했으나, 기독교, 오두막 세, 광범한 경제적 압박 등의 영향으로 19세기 후반엔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³⁷⁾ 둘째,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남성 중 상당수가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이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혼외 관계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³⁸⁾

이처럼 이주가 초기엔 간통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주는 사회를 쪼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혼 남성은 장기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가족 내 권위에 대한 불안감은 부인의 불륜을 점점 우려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불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부채질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륜 관계로 인한 임신이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여성이 배우자의 장기 부재를 감추거나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³⁹⁾ 남성이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이

36) Monica Wilson *et al.*, *op. cit.*, p.126; Patrick Alister McAllister, “Xhosa Beer Drinks and Their Oratory,” Ph.D. Dissertation, Rhodes University, 1986, p.273, p.277.

37) Monica Wilson, “Xhosa Marriage in Historical Perspective,” *Essays on African Marriage in Southern Africa*, ed. by Eileen Krige and John Comaroff, Cape Town: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1981, pp.138-139.

38) Philip Mayer, *Wives of Migrant Workers*, Unpublished typescript, Rhodes University, Grahamstown, 1978, p.125.

39)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96.

주 노동 체계하에서, 부부 모두가 정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샤페라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 이주로 인해 카틀라 사회에서는 간통이 상당히 증가했다. 남편이 장기간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부인은 성욕을 더는 참지 못하고 주변에서 애인을 찾기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자신이 부재중 일 때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⁴⁰⁾ 남편이 장기간 부재중인 여성 중 상당수는 남편이 보내 주는 돈으로 술을 마시곤 했다. 이러한 소비 활동은 경제적 재분배라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성적 무분별이라는 역기능도 초래했다.⁴¹⁾

1930~1940년대 무렵 대개의 농촌 공동체에서 두드러진 점은 내연관계(concubinage)의 증가였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상당수의 이주자는 임금 상승 둔화로 인해 결혼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축적할 수 없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대가 상당히 올랐다. 셋째, 일부 남성은 부인을 부양하거나 귀향하는 데 실패했다. 넷째,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그 격차가 점점 커졌다.⁴²⁾ 모니카 헌터의 연구에 따르면 1930년대에도 폰도랜드(Pondoland)에는 상당수의 이디카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모든 기혼 남성은 이디카지를 특별한 친구로 두었다. 지역민들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에 이디카지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디카지의 증가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니카 헌터는 그 당시 이디카지의 존재 양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⁴³⁾

아마디카지는 그들의 애인이 선물한 장신구의 숫자와 의류의 우아함 때문에 항상 눈에 띈다. [...] 일부의 부인은 자기 남편과 아마디카지의 연애에 대해 평정심을 잃지 않지만, 다른 부인들은 미친 듯이 질투한다. [...] 또한 남성 간에는 아마디카지를 둘러싼 끝없는 질투가 존재하며, 아마디카지 간에는 남성을 둘러싼 끝없는 질투가 존재한다. [...] 아마디카지는 [...] 집에서 일을 별로 하지 않으며, 부인들보다 더욱더 많은 자유

40) Isaac Schapera, *op. cit.*, 1940, p.210.

41) Philip Mayer, *op. cit.*, 1978, pp.72-74; Patrick Alister McAllister. *op. cit.*, p.101.

42)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98.

43) Monica Hunter, *op. cit.*, pp.206-208.

를 누린다. [...] 그들의 애인은 선물을 주긴 하나, 성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값을 치르지는 않는다. 아마디카지는 해당 공동체의 예술가다. 그들은 다른 여성에 비해, 자신과 애인을 위해 정교한 구슬 세공과 자수(刺繡)를 할 수 있는 여가를 더 많이 가진다. 또한 그들은 최고의 무용수이기도 하다.

내연관계의 증가는 대개의 농촌 공동체에선 여성의 숫자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결혼 가능한 숫자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았음을 의미했다. 예컨대 1946년 센서스에 따르면 이스턴케이프주(Eastern Cape Province) 케이스카마호크구(Keiskammahoek District)의 경우, 결혼 가능한 24세 이상 남성은 481명에 불과했지만, 20~29세 미혼 여성(565명)과 버림받은 여성(130명)을 포함하면 결혼 가능한 20~49세 여성은 총 1,26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결혼 가능한 여성이 배우자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다.⁴⁴⁾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은 농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일정 역할을 했던 첩장가 들기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또한 결국 내연녀가 될 가능성은 혼전 임신 때문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해서 남성이 보상을 강요당하지는 않았다. 남성은 그녀와 결혼하거나 그녀를 장기간 부양할 의무를 강요당하지도 않았다.⁴⁵⁾ 메이어는 자신이 1950년대에 실시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인카자나(*inkazana*, 복수형은 *amankazana*)라는 존재에 주목했다. 인카자나는 결혼 자격 미달로 인해 그녀의 부모 집을 벗어난 상태에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그녀와 자식은 항상 그녀의 부모 집에 속해 있었다. 인카자나는 사회적으로 성인과 동일시되었다. 인카자나는 소녀가 아니라 부인처럼 옷을 입고, 미혼 소녀의 선배로 대접받았다. 그녀는 소년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성숙한 남성과 성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인카자나의 지위가 부인의 지위보다 고귀하지 않았으나 그녀는 결코 경멸을 당하진 않았다.⁴⁶⁾ 마크 헌터의 주장에 따르면 1940~50년대에는 줄루 사회에서도 간통이 흔했다. 하지만 간통을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대

44) Monica Wilson *et al.*, *op. cit.*, pp.92-93.

45)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p.98-99.

46) Philip Mayer, *Townsmen or Tribesmen: Conservatism and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 a South African City*, Cape Tow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1961], pp.235-236.

우는 판이었다. 다수의 섹스 파트너를 둔 남성(*isoka*)은 축하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를 둔 여성(*isifebe*), 특히 미혼 여성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았다.⁴⁷⁾ 성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무렵까지도 줄루족 여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퍼시 카이소(Percy Qayiso)는 메이어의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이스턴케이프의 여러 공동체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그는 지역민의 성적 태도와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⁴⁸⁾

코사 사회에서 혼외 관계에 대한 기혼 남성의 견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남성은 결혼하지 않는다”(indoda ayitshatwa)는 표현이다. [...] 남성은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는 여성과의 성행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남성은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한 여성에 만족할 수 없다. [...] 남성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많은 애인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바람둥이(*udlalani*, play boy)가 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카이소의 주장에 따르면 코사족 여성은 이러한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며, 수유 중인 여성은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금기가 간통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젊은 코사족 부인들도 자기 남편의 간통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남성이 두 명 이상의 여성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새댁이 간통하는 남편에게 질투의 조짐을 보일 경우엔 시어머니가 그녀를 질책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책무가 남편의 꿈 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를 돌보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인카자나와의 성관계는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초기에는 음푼도 사회 등에서 인카자나를 임신시킨 데 대한 벌금이 존재했으나, 1960~70년대 무렵에는 벌금이 더는 부과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물질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할 뿐이었다. 인카자나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버지는

47) Mark Hunter, “Cultural Politics and Masculinities: Multiple-Partner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KwaZulu-Natal,” *Culture, Health & Sexuality* 7(4), 2005, p.395.

48) Percy Qayiso, “Xhosa Sexual Morality,” n.d., p.77,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4, pp.100-101에서 재인용.

아이를 위해 비누를 사야 했다. 비누를 산다는 것은 그에게 아이를 낳아 준 인카자나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기혼 남성의 불법적인 정사가 부인의 귀에 들어가면 그녀에게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대개는 남성의 이러한 수치심이 죄책감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간통 행위 그 자체보다는 신중하지 못함이 수치의 근원이었다.⁴⁹⁾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줄어든 공동체에서 미혼 여성,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 과부, 버림받은 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무렵에는 남편과 그의 가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성은 심사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⁵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메이어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녀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그녀를 부양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신부대용) 소를 돌려줄 수 있을지? [...] 토지를 이용할 기회가 있을지, 또는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배분받을 수 있을지? [...] 오늘날에 와서 토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인카자나 만큼이나 소를 돌려줄 수 있는 아버지는 드물다.”⁵¹⁾ 이 무렵 인카자나는 대개 버려진 부인이었다. 코사 사회에서 인카자나는 부러운 지위가 결코 아니었다.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인카자나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대체로 용인하는 편이었다.⁵²⁾

이처럼 이주 노동 체계의 확산은 농촌 사회의 약화와 변동에 초래하고, 혼외 성관계 경향을 강화했다. 이러한 경향에 제동을 건 것은 기독교였다. 선교사들은 일부일처제를 강조하고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간통과 결혼 전의 성관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19세기 무렵까지 아프리카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중은 작았으나,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59%로 늘어났다.⁵³⁾ 이런 상황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들은 혼전 성

49) Percy Qayiso, *ibid.*, p.78, p.155,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ibid.*, pp.101-102에서 재인용.

50)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ibid.*, p.99.

51) Philip Mayer, *op. cit.*, 1978, p.88.

52) *ibid.*, pp.93-95.

53) B. A. Pauw, *Religion in a Tswana Chieftdo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행위를 거의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십 대의 임신율은 비교적 높았다.⁵⁴⁾ 또한 이들 공동체는 혼외 성행위를 통제하려는 노력도 했지만, 메이어가 1950년대 동안 이스턴케이프에서 수집한 증거가 보여 주듯이, 이러한 노력 역시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결혼에 대한 기독교의 관념과 코사족의 사회 규범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메이어의 언급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일부는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서 간통을 자제하긴 했으나, 이것이 코사 사회의 일반적 규범은 아니었다. 즉, 대개의 남성 기독교인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의 혼외정사를 간통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여겼다.⁵⁵⁾

20세기 후반부터 기독교의 가치와 토지 및 가축 자원에 대한 압력 증가가 결합하면서, 대다수 농촌 공동체에서는 독신 여성의 지위가 점차 불안정해졌다. 스피겔이 레소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적했듯이, 혼외 관계의 만연은 독신 여성이나 버려진 여성이 이주자의 소득 중 일부를 농촌 공동체 내에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⁵⁶⁾ 또한 1980년대 초반까지도 ‘기혼 여성이 애인을 가지는 관행’(bonyatsi)은 매우 흔했다. 물질적 궁핍에 시달리거나 남편이 이주 노동을 위해 타지에 나가 있을 때 상당수의 부인은 이러한 선택을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정서적·물질적 지지 수단을 획득할 수 있었다. 스피겔은 이런 관행을 소토족이 오랫동안 유지한 관습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앞서 언급했듯이 소토족 추장들은 가난한 피후견인(client)이 자신의 젊은 부인과 사귀는 것을 묵인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남성의 장기간 노동 이주로 인해, 남편과 부인이 각자 다수의 섹스 파트너를 두는 경향은 오늘날의 남아공 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1960, pp.246-247.

54) Peter Delius and Clive Glaser, *op. cit.*, 2002, pp.35-38.

55) Philip Mayer, *op. cit.*, 1978, p.214.

56) Andrew D. Spiegel, “Migrant Labour Remittances, the Developmental Cycle and Rural Differentiation in a Lesotho Community,” M.A. Thesis, University of Cape Town, 1979, p.3.

57) Andrew D. Spiegel, *op. cit.*, 1990, p.2, p.5, p.9.

IV. 일부다처제의 최근 존재 양상: 변화와 지속

남아공에서 결혼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첫째, 도시에서는 동거하는 젊은이가 늘어났다. 둘째,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었다. 셋째, 노동 이주는 남성과 여성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 기술 발전, 더딘 경제 성장,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1994년 이후부터 무역 장벽이 완화되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시직화 현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⁵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남아공의 실업률은 평균 25.8%에 달했다. 2003년에는 실업률이 무려 31.2%에 달했으며, 2019년 3분기에도 실업률은 29.1%나 되었다.⁵⁹⁾

1990년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면서 일부 남아공 사람은 취학과 취업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신부대를 치를 가능성은 남성의 취업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이에 따라 대개의 남아공 공동체에서 혼인은 드문 일이 되어 버렸다.⁶⁰⁾ 마커스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신부대 치르기와 같은 관습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⁶¹⁾ 게다가 기혼 남성 중에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남아공의 젠더 전문가인 놌보니소 가사(Nomboniso Gasa)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다처혼을 한 남성 중 대다수는 부인과 자식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 대개의 남아공 남성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형편이 안

58) Mark Hunter, *op. cit.*, 2005, pp.395-396; Casey Lanier Blalock, "Labor Migration and Employment in Post-Apartheid Rural South Afric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2014, p.2.

59) Trading Economics, "South Africa Unemployment Rate," 2019.

60) Mark Hunter, *op. cit.*, 2005, pp.395-396.

61) Tessa Marcus, "Virginity Testing: A Backward-Looking Response to Sexual Regulation in the HIV/AIDS Crisis," *Zulu Identities: Being Zulu, Past and Present*, ed. by Benedict Carton *et al.*, Scottsville: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2008, p.540.

된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은 여전히 그리길 바란다. 일부다처혼을 한 남성은 일부일처혼을 한 남성에게 비해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다.⁶²⁾

줄루족의 유명한 속담 중엔 “소녀의 로볼로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intombi ayiqedwa*)⁶³⁾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줄루 사회에서는 신부대를 떼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오늘날에 와서 이런 현상은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했던 키즈드리프트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지역 기혼 남성 중 신부대를 완전히 치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처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남성도 적지 않았다. 인툼빌레 줄루(*Intombile Zulu*, 여, 30세,⁶⁴⁾ 줄루족, 고퇴, 공무원)의 남편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현지조사 당시 그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택시기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신부대를 완전히 치르지 않았다. 고향의 처자식에게 보내 주는 생활비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툼빌레는 남편이 그 도시에서 다른 여자와 탄살림을 차렸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도 일부다처제를 약화하는 요인이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면서 여성이 부를 창출할 기회가 늘어났다. 신정부의 양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차별적 규제를 철폐했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임금 노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일부다처제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⁶⁵⁾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이런 최근 변화 양상에 대한 마크 헌터의 주장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대다수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신부대는 큰 부담이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할 변화는 남성의 지위를 약화하고 혼인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콰줄루나탈주에서 소 11마리는 모든 아프리카 전통 중에서 시대를 가장 초월한 것 중의 하나로 보인다. [...] 확실히

62) Tsoaledi Daniel Thobejane and Takayindisa Flora, *op. cit.*, p.1063.

63) Mark Hunter, *op. cit.*, 2004, p.147.

64) 본 연구자가 만난 제보자의 나이는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65) C. M. Anderson, *op. cit.*, p.3.

대, 혼인은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 항상 과정이 되어 왔으며, 융통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대개의 가족은 소와 현금의 교환율을 너그럽게 활용한다. 그럼에도 혼인은 대다수 젊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의 범위 밖에 계속 존재한다. 가장 최근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남아공의 15세 이상 아프리카인 남성과 여성 중 30% 이하가 2001년에 혼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여성의 지위 및 역할과 연관된 변화는 가장(*umnumzana*)으로서 남성의 지위를 약화하는 데 기여한다. 많은 남성은 더는 유일한 가족 부양자가 아니며, 일부는 생존을 위해 심지어 여성에게 의존한다.⁶⁶⁾

하지만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 이주는 상당수의 기혼 남성이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를 두게 되고, 일부 여성도 성적 욕구 해결과 생존 차원에서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를 두게 되는 현상을 더욱 자극했다. 지금도 남아공의 수많은 사람은 더욱 나은 경제적 삶을 꿈꾸며 노동 이주를 단행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키츠드리프트에서 만난 제임스 줄루(*James Zulu*)와 크웬자 음추누(*Kwenza Mchunu*)는 장기간 노동 이주 경험이 있는 남성이다. 특히 제임스 줄루는 인생의 대부분을 타지에서 보냈다. 그는 42년간의 노동 이주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고향으로 돌아와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 이주가 일부다처제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먼 타지로 돈 벌러 나간 남성은 과거에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고향을 방문하여,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이때가 아이를 만드는 기간이다. [...]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간 타지에 나가 있는 동안, 고향에 남아 있는 부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고향 집을 방문했을 때 부인의 정부(情夫)와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러면 그는 “네가 왜 우리 집에 와 있느냐? 그녀는 너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다.”라며 분노한다. 때로는 남편이 정부에게

66) Mark Hunter, *op. cit.*, 2005, p.396.

총을 쏘기도 한다.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대개는 합의를 보지만, 때론 감옥에서 수년간 살기도 한다.” (제임스 줄루, 남, 69세, 줄루족, 무학, 무직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돈을 벌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생활했다. [...] 나에게서는 아내 이외에도 두 명의 여성이 더 있다. [...] 요하네스버그에서 객지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외로웠다.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두 여성과 교제하여 각각 두 명과 한 명의 아이까지 두었다. 그래서 혼외 자식의 양육비를 보내 주기 위해 만 주머니를 차야 한다. 아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아내에게는 월 1,200랜드를 보내 주고, 두 여성에게는 자녀 양육비만 보내 주고 있다. [...]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 특히 젊은 남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부인 이외의 여성과 교제하여, 아이까지 두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크웬자 음추누, 남, 34세, 줄루족, 고졸, 무직자)

앤더슨은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탐구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남아공 콰줄루나탈주의 농촌 지역, 요하네스버그-프리토리아 지역, 스와질란드의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남아공에서는 성적 경쟁과 질투라는 서구 이데올로기가 여성 간 협력과 결속이라는 이전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젊은 여성 중 상당수가 일부다처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은 이 혼인 제도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동 부인들은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특정 부인이 부재한 동안 다른 부인이 가사를 돌볼 수 있어서, 다른 곳에 일하러 가거나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셋째,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장기간 타지로 나가서 노동하므로 부인들 간의 친교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부인들의 자유로운 노동 활동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⁶⁷⁾

67) C. M. Anderson, *op. cit.*, pp.1-3. 하지만 헨드릭스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는 더반에 거주하는 무슬림 기혼 여성(35~55세) 네 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손위 부인들은 일부다처제를 ‘불륜’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일부다처제를 배신 행위로 인식했다. 결과적으로, 일부다처제는 분노, 거부, 고통 및 질투를 야기한

앤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여성이 일부다처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30여 년 전의 이유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특히, 지금은 높은 실업률과 만연한 빈곤 때문에 남편으로 삼을 만한 남성이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다처제라는 혼인 제도가 없으면 더욱더 많은 여성이 미혼 상태로 있어야 한다. 또한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부유한 남성이 자신의 부를 다른 가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⁶⁸⁾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남아공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일부다처제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슈거 대디(sugar daddy)가 대표적인 예다. ‘슈거 대디’란 성관계를 대가로 여학생이나 가난한 여성에게 돈이나 물질적 재화를 제공하는 남성을 말한다.⁶⁹⁾ 이러한 비공식적 성관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 간에는 사회·경제적 비대칭성, 즉 지배-종속 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남성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 재화를 획득한다. 셋째, 이런 성적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또래 집단 내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다. [...] 이들 여성은 금전적 지원, 신뢰, 자존감, 정체성, 존엄성 및 자아감의 상실과 같은, 부부 관계와 관련된 상실감에 대해 말했다. 이들 순위 부인에게 일부다처제는 성적 배타성, 공유된 친밀감 및 안정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실은 굴욕감과 박탈감을 동반했다. 이들 여성은 일부다처제가 자녀와 아버지 간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었다. 자녀는 정서, 행동, 학업에서 문제를 경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hariefa Hendricks, “Polygamy in South Africa: An Exploratory Study of Women’s Experiences,” M.A. Thesis, University of Kwa-Zulu Natal, 2004, p.2.

68) *ibid.*, p.3.

69) Robert Wyrod *et al.*, “Beyond Sugar Daddies: Intergenerational Sex and AIDS in Urban Zimbabwe,” *AIDS and Behavior* 15(6), 2011, p.1275; Elias R. Mathipa *et 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sing HIV/AIDS Infection Rate among Soshanguve School Girls in the FET Band,” *Journal of Human Ecology* 45(1), 2014. p.55; Lucy Long, “Sex, Secrecy and Stigma: Negotiating Youth in a Context of HIV/AIDS,” B.A. Thesis, University of Oxford, 2015, p.35; William K. A. Agyei and Tina Abrefa-Gyan, “Risky Sexual Behavior and Condom Use among Youth in Botswana,” *Journal of Human Ecology* 55(3), 2016, p.148.

V. 맺음 글

일부다처제가 언제부터 혼인 제도로 자리 잡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자는 일부다처제가 농경을 물질적 생존의 토대로 삼고 있는 부계 사회에서 주로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 사회 진화론의 시조라 불리는 허버트 스펜서는 1876년에 출간한 『사회학 원리』를 통해, 일부다처제가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⁷⁰⁾ 미국의 인류학자 루이스 모건이 1877년에 출간한 『고대 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진화론적 연구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이 저서 역시 일부다처제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는 이 저서에서 일부다처제를 “남성의 특권”⁷¹⁾이라고 주장했다. 스펜서와 모건의 이런 주장이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부다처제 발생의 주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가 역사적 궤적과 노동 이주의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관성’과 ‘실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부다처제가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남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만연했다는 일반적 인식은 ‘신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회 제도는 이념형과 실제형 간에 크고 작은 간극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부다처제는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⁷²⁾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남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와 성적 관행은 개별 집단의 존재 조건과 행위 주체의 사회·경

70) Herbert Spencer, *The Principles of Sociology* (Vol. I) (3rd ed.),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98[1876], pp.665-669.

71) Lewis Henry Morgan, *Ancient Society*,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1877, p.441.

72)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제적 배경에 따라 그 실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다처제나 성적 관행을 동질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성의 관점을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대규모 노동 이주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 구조의 균열을 초래했다. 남편과 부인이 각자 다수의 섹스 파트너를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것도 바로 노동 이주 때문이었다. 넷째,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남아공의 경기 침체는 일부다처제의 존속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시직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현실 속에서, 젊은 남성이 신부대를 치르고 혼인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도 남아공 사람 중 상당수는 일부다처제가 존속되길 원한다. 이것은 일부다처제가 문화적 관성이라는 속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필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슈거 대디’로 대변되는 세대 간 성적 관계는 일부다처제의 이런 성격을 웅변적으로 드러낸다. 여섯째, 남성과 여성이 일부다처혼을 통해 획득하는 상징성은 각기 다르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일부다처혼을 한 남성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지만, 일부다처혼을 한 여성은 가난한 사람으로 대개 간주된다.

그간 인류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일부다처제 현상에 관심을 가져 왔다. 대다수 연구자는 이 제도의 장점이나 단점(또는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대해 나름의 주장을 폈다. 일부다처제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한 인류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개별 연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들어 이 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양성 불평등은 일부다처제 폐지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다처제는 단기간에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부 사람이나 조직이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 문제에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더욱 근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완벽하게 통제했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다.

■ 참고문헌

- 유재명, 「흑아프리카 전통 가족 제도의 특징」, 『비교문화연구』 45집, 2016.
- Adeokun, Lawrence A., “Marital Sexual Relationships and Birth Spacing among Two Yoruba Sub-Groups,” *Africa* 52(4), 1982.
- Agyei, William K. A. and Tina Abrefa-Gyan, “Risky Sexual Behavior and Condom Use among Youth in Botswana,” *Journal of Human Ecology* 55(3), 2016.
- Alberti, Ludwig (trans. W. Fehr), *Account of the Tribal Life and Customs of the Xhosa in 1807*, Balkema: Cape Town, 1968.
- Anderson, C. M., “Polygyny in South Africa,” *Anthropology and Ethnology Open Access Journal* 1(1), 2018.
- Andrews, Penelope E., “Who’s Afraid of Polygamy? Exploring the Boundaries of Family, Equality and Custom in South Africa,” *Journal of Law & Family Studies* 11(2), 2009.
- Awusabo-Asare, Kofi and John K. Anarfi, “Postpartum Sexual Abstinence in the Era of AIDS in Ghana: Prospects for Change,” *Health Transition Review* 7, 1997.
- Blalock, Casey Lanier, “Labor Migration and Employment in Post-Apartheid Rural South Afric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2014.
- Caldwell, J. C. and Pat Caldwell, “The Role of Marital Sexual Abstinence in Determining Fertility: A Study of the Yoruba of Nigeria,” *Population Studies* 31(2), 1977.
- Caldwell, John C., Pat Caldwell and I. O. Orubuloye, “The Family and Sexual Networking in Sub-Saharan Africa: Historical Regional Differences and Present-Day Implications,” *Population Studies* 46(3), 1992.
- Carton, Benedict, *Blood from Your Children: The Colonial Origins of Generational Conflict in South Africa*, Pietermaritzburg: University of Natal Press, 2000.
- Clignet, Remi and Joyce A. Sween, “For a Revisionist Theory of Human Polygyny,” *Signs* 6(3), 1981.

- Delius, Peter, *Land Belongs to Us: The Pedi Polity, the Boers, and the British in the Nineteenth-Century Transvaal*, London, Ibadan and Nairobi: Heinemann, 1984[1983].
- Delius, Peter and Clive Glaser, "Sexual Socialisation in South Africa: A Historical Perspective," *African Studies* 61(1), 2002.
- _____, "The Myths of Polygamy: A History of Extra-Marital and Multi-Partnership Sex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50, 2004.
- Ellenberger, D. Fred (trans. by J. C. Macgregor), *History of the Basuto: Ancient and Modern*, London: Caxton Publishing Company, 1912.
- Ember, Melvin, Carol R. Ember and Bobbi S. Low, "Comparing Explanations of Polygyny," *Cross-Cultural Research* 41(4), 2007.
- Freeman, J. J., *A Tour in South Africa with Notices of Natal, Mauritius, Madagascar, Ceylon, Egypt, and Palestine*, London: John Snow, 1851.
- Fulas, Dureti Abate, "The Legal Framework Regulating Polygamy in Ethiopia: An Assessment in Light of Liberal Feminist Legal Theor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aster Thesis, Lund University, 2018.
- Gluckman, Max, "Kinship and Marriage among the Lozi of Northern Rhodesia and the Zulu of Natal," *African Systems of Kinship and Marriage*, ed. by A. R. Radcliffe-Brown and Daryle Ford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1950].
- Gray, J. Patrick, "Ethnographic Atlas Codebook," *World Cultures* 10(1), 1998.
- Guy, Jeff, "Analysing Pre-Capitalist Societies in Southern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14(1), 1987.
- Hendricks, Shariefá, "Polygamy in South Africa: An Exploratory Study of Women's Experiences," M.A. Thesis, University of Kwa-Zulu Natal, 2004.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Hunter, Mark, "Masculinities, Multiple-Sexual-Partners, and AIDS: The Making and Unmaking of *Isoka* in KwaZulu-Natal," *Transformation* 54, 2004.
- _____, "Cultural Politics and Masculinities: Multiple-Partner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KwaZulu-Natal," *Culture, Health & Sexuality* 7(4), 2005.
- Hunter, Monica, *Reaction to Conquest: Effects of Contact with Europeans on the Pondo of South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 Ickowitz, Amy and Lisa Mohanty, "Why Would She? Polygyny and Women's Welfare in Ghana," *Feminist Economics* 21(2), 2015.
- Illiffe, John, *Africans: The History of a Continent*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1995].
- Long, Lucy, "Sex, Secrecy and Stigma: Negotiating Youth in a Context of HIV/AIDS," B.A. Thesis, University of Oxford, 2015.
- Mahoney, Michael R. and Julie Parle, "An Ambiguous Sexual Revolution? Sexual Change and Intra-Generational Conflict in Colonial Natal,"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50(1), 2004.
- Marcus, Tessa, "Virginity Testing: A Backward-Looking Response to Sexual Regulation in the HIV/AIDS Crisis," *Zulu Identities: Being Zulu, Past and Present*, ed. by Benedict Carton, John Laband and Jabulani Sithole, Scottsville: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2008.
- Mathipa, Elias R., K. Ntsana Margaret and S. Mail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sing HIV/AIDS Infection Rate among Soshanguve School Girls in the FET Band," *Journal of Human Ecology* 45(1), 2014.
- Mayer, Philip, *Townsmen or Tribesmen: Conservatism and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 a South African City*, Cape Tow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1961].
- _____, *Wives of Migrant Workers*, Unpublished typescript, Rhodes University, Grahamstown, 1978.
- McAllister, Patrick Alistair, "Xhosa Beer Drinks and Their Oratory," Ph.D. Dissertation, Rhodes University, 1986.
- Mkhize, Zama and Shanta Balgobind Singh, "Experiences of Women in

- Polygynous Unions in Hammarsdale, South Africa,” *Journal of Psychology* 6(2), 2015.
- Mkhize, Zamambo Valentine, “Polygyny & Gender: The Gendered Narratives of Adults Who Were Raised in Polygynous Famil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waZulu-Natal, 2015.
- Mönnig, Hermann Otto, *The Pedi*, Pretoria: J. L. Van Schaik, 1967.
- Morgan, Lewis Henry, *Ancient Society*,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1877.
- Murdock, George Peter, *Ethnographic Atla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7.
- Mwambene, Lea, “What Is the Future of Polygyny (Polygamy) in Africa?,” *PER/PELJ* 20, 2017.
- Naksomboon, Pantiwa and Nathalie Mondain, “The Motivations for Polygyny in Nigeria,” Major Research Paper, University of Ottawa, 2013.
- Pauw, B. A., *Religion in a Tswana Chieftdo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 Peletz, Michael G., “Kinship Studies in Late Twentieth-Century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1995.
- Read, Margaret, “The Moral Code among the Ngoni and Their Former Military State,” *Africa* 11(1), 1938.
- Schapera, Isaac, “Premarital Pregnancy and Native Opinion: A Note on Social Change,” *Africa* 6(1), 1933.
- _____, *Married Life in an African Tribe*,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40.
- Soga, John Henderson, *The Ama-Xosa: Life and Customs*, Lovedale: Lovedale Press, 1932[1931].
- Spencer, Herbert, *The Principles of Sociology* (Vol. 1) (3rd ed.),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98[1876].
- Spiegel, Andrew D., “Migrant Labour Remittances, the Developmental Cycle and Rural Differentiation in a Lesotho Community,” M.A. Thesis, University of Cape Town, 1979.

- _____, “Polygyny as Myth: Towards Understanding Extra-Marital Relations in Lesotho,”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History Workshop Conference, Johannesburg, February 6-10, 1990.
- Thobejane, Tsoaledi Daniel and Takayindisa Flora, “An Exploration of Polygamous Marriages: A Worldview,”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27), 2014.
- Ware, Helen, “Polygyny: Women’s Views in a Transitional Society, Nigeria 1975,”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1), 1979.
- White, Douglas R. and Michael L. Burton, “Causes of Polygyny: Ecology, Economy, Kinship, and Warfare,” *American Anthropologist* 90(4), 1988.
- Wilson, Monica, “Xhosa Marriage in Historical Perspective,” *Essays on African Marriage in Southern Africa*, ed. by Eileen Krige and John Comaroff, Cape Town: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1981.
- Wilson, Monica, Selma Kaplan, Theresa Maki and Edith M. Walton, *Keiskammahoek Rural Survey* (Vol. III): *Social Structure*, Pietermaritzburg: Shuter and Shooter, 1952.
- Wyrod, Robert *et al.*, “Beyond Sugar Daddies: Intergenerational Sex and AIDS in Urban Zimbabwe,” *AIDS and Behavior* 15(6), 2011.
- Trading Economics, “South Africa Unemployment Rate,” 2019.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africa/unemployment-rate> (검색일: 2019.10.10.)
- Wikipedia, “Legality of Polygamy,” 2019. https://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polygamy (검색일: 2019.12.05.)

❖ ABSTRACT

A Study of Polygyny in Southern Africa:
The Reality and Change of Tradition

Seol, Byung-S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polygyny in southern Africa has exist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trajectory and labor migration. Through it all, the study tried to argue that, despite socioeconomic changes, polygyny will not easily disappear, because of *cultural inertia* and *practical necessity*. The points discussed in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perception that polygyny prevailed in traditional southern African societies is close to a *myth*. Second, polygyny and sexual practices in the area manifest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each group's existential conditions and the ag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Third, large-scale labor migration starting from the late 19th century resulted in the fissure of the traditional family and community structures. Fourth, the economic recession in South Africa that began in the 1970s has endangered the survival of polygyny more and more. Fifth, despite such a situation, most South African people want the institution to survive. Finally, men and women obtain different symbolic meanings from polygynous marriage.

Key Words : southern Africa, polygyny, tradition, reality, change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